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 전집본 『가람일기』(전5권)를 중심으로 -

이 민 희*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진면목 |
| 2. 가람의 고서 수집 및 서지 연구 | 1) 고서 수집 방법 및 거래 내용 |
| 1) 초기-한문일기 | 2)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진면목 |
| 2) 중기-국문일기 | |
| 3) 후기-국한(國漢)혼용일기 | 4. 나오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시조 시인·국학자로 잘 알려진 가람 이병기(1891~1968)를 근대 서지학자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완간된 전집본 『가람일기』(전5권)를 중심으로 가람의 고서 수집 및 거래 내역, 서지 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57년간 기록된 『가람일기』는 한문, 국문, 국한혼용문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작성되었는데, 이에 준거해 가람의 일기쓰기를 초-중-후기로 나누고 고서 및 서지에 대한 가람의 학문적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은 가람을 근대 서지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네 가

* 강원대학교 교수

지로 제시했다. 가람은 1) 형태서지학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지녔고, 2) 서적의 판본과 서지 정보를 살펴 진본과 위작을 구별하는 능력(감식안)이 뛰어났으며, 3) 고전 문헌 연구 및 교주·주해를 통해 문헌사회사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으며, 4) 귀중본과 각종 진서를 다수 수집한 전문 장서가였다. 이에서 근대 서지학 연구의 선구자로서 가람의 위치와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제어: 가람 이병기, 전집본 『가람일기』, 한문일기, 국문일기, 국한혼용일기, 고서 전문 감식안, 형태서지학, 근대 서지학자, 장서가

1. 들어가며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학문은 하해(河海)를 닦았다. ‘가람’이라는 호처럼 시조시인, 국학자, 고전문학자, 한글운동가, 국어교육자, 역사가, 서지학자, 장서가라는 큰 강줄기를 이루어 각처로 흘러가 닿는다. 2024년 완간 『가람 이병기 전집』(전30권)이 바로 그러한 가람의 진면목을 여실히 살필 수 있는 원천이 된다.¹⁾ 가람 전집 완간은 가람학 연구의 시발점일 뿐 아니라, 가람 연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쯤일지 비로소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과 같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별하다. 매체와 국경, 인종, 시대와 사회를 넘어 새로운 인문학적 비전과 미래를 사유하는 문화코드를 가람 전집에서 발견해 낼 여지가 농후한 까닭이다. 원석이 풍부하므로 그 원석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라는 공

1) 이병기, 가람전집간행위원회 편, 『가람 이병기 전집 1-30』,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4-2024. 2014년 가람전집 간행 작업이 시작되었고 2024년 12월에 완간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저작물 수집과 입력, 교정, 편집, 출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거니와 그만큼 가람의 저작이 방대하고 다대한 가치를 지님을 방증한다. 인간 이병기와 그의 학문 세계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원천 자료가 마련되었다.

정이 시대적 과제로 남을 뿐이다.

본고는 가람 전집에서 특별히 가람을 근대 서지학자로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가람을 고서 수집가·서지학자로 평가한 성과가 이미 여럿 있지만²⁾ 선행 연구는 문고본 『가람일기(Ⅰ·Ⅱ)』³⁾를 토대로 한 것이라 이제 연구 결과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일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⁴⁾ 전집본 『가람일기』(전집 제6권-제10권, 총5권)에는 발췌본인 문고본 『가람일기』에 빠져 있던 원본 일기 전체가 고스란히 실렸다.⁵⁾ 따라서 전집본 『가람일기』만큼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면모를 적실히 알려주는 보고(寶庫)도 없다.

일찍이 문고본 『가람일기』(1976)⁶⁾ 책임 편집자였던 정병욱과 최승범도 스승 가람을 시조시인·고전문학자가 아닌, 첫째가는 장서가이자 서지학자로 소개하면서 가람의 고문헌 취급 방법과 연구 내용을 알려주는 문헌사로서 『가람일기』을 거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활동과 성과에 관해 논한 이민희의 논문들이 선편을 차지한다.(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쪽;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애산학보』 40, 애산학회, 2014, 215-262쪽;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書目)> 연구」(『영남학』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271-312쪽 등)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이민영(「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과 임미진(「가람 이병기 서지 연구」)이 가람과 서지학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고, 최근 윤지아가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문헌 필사와 필사자의 존재양상 연구」(『고전과 해석』 24,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55-82쪽)를 제출한 바 있다.

3)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Ⅰ·Ⅱ)』, 신구문화사, 1976.

4) 황재문, 「이병기의 수학(修學)과 학술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람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41, 진단학회, 2023, 131-132쪽. 전집본 『가람일기』와 문고본 『가람일기』를 비교해 논한 첫 번째 성과에 해당한다. 문고본 분량이 원본의 70%를 수록했다고 밝힌 기존 문고본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면서 문고본과 차이 나는 전집본 일기 내용을 토대로 가람 학술 활동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했다.

5) 문고본 『가람일기』에 누락된 부분까지 모두 채운 전집본 『가람일기』는 선행 연구에서 놓쳤던 지점들까지 보완하고 연구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6)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Ⅰ·Ⅱ』, 신구문화사, 1976.

선생님은 이 땅의 장서가로 첫손을 꼽히셨고 아울러 서지학(書誌學)의 권위이기도 하셨다. 따라서 선생님의 일기는 바로 우리나라 고문헌(古文獻)의 부침소장(浮沈消長)을 알리는 문헌사(文獻史)가 될 것이다.⁷⁾

가람 자신도 반평생을 ‘고서’(=고전문학, 서지 연구)와 ‘난초’(=풍류와 예술, 시조), 그리고 ‘백목’(=교육)과 함께 살아왔노라고 회고한 바 있다.

나는 古書와 蘭草와 白墨으로 半生을 보냈다. (중략) 우리 고전문학엔 註解를 한 이가 한 사람이나 있었던가? 약간 한문으로 번역한 건 있으나 우리 말글로는 전연 없었다. 이같이 蕪雜한 材料를 그냥 두고 무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⁸⁾

자의든 타의든 가람이 고서 전문가이자 서지학자로서 일가(一家)를 이루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집본 『가람일기』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무엇보다 20대에 쓴 한문일기 원문과 번역문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소장한 가람일기 원본은 총 51권짜리 일기장인데, 전집본 『가람일기』에는 그 원본 전체가 망라되어 실렸기에 독보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가람은 1909년 4월 13일부터 1919년 8월 15일까지 처음에는 한문일기를 썼다. 그 후 1919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한문과 순국문 두 가지 언어 버전으로 쓰다가 1919년 8월 16일부터 1926년 4월 31일까지는 순국문체로 바꿔 썼다. 그리고 1926년 5월 1일부터 1966년 6월 17일까지 후반부 일기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썼다. 1909년부터 1966년까지 햇수로 장장 57년에 달하는, 가람 개인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⁹⁾

일기의 언어 표기 방식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록 방식의 차이가 아니

7)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I』, 신구문화사, 1976, 3-5쪽.

8) 이병기, 「고전문학론」, 『문학』 6(3), 1950.5.1., 138-139쪽.

9) 1917년 4월부터 1919년 4월 중순까지 약 2년간에 해당하는 원본 일기장 자체가 아예 빠져 있다. 해당 기간의 일기장이 망실되었기 때문이다.

라, 가람의 대타적 사회의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초기(1909~1919)에는 전통적인 한문일기를 유지했지만, 중기(1919~1926)에는 국문일기를, 그리고 후기에는 국한혼용일기를 채택했다. 이런 변화는 가람이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학문적 소통 방식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고자 한 시도와 맞닿아 있다.¹⁰⁾ 본고는 이런 의식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지학에 대한 가람의 태도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전집 중 제23권은 『문헌·서지학』이란 제목 아래 가람이 쓴 서지학 관련 글과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에 관해 언급한 타인의 글이 묶여 있다. 따라서 전집본 『가람일기』를 중심으로 하되, 서지·문헌 관련 방계 자료까지 참고해 그 구체적 활동상을 재구하고 가람을 서지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이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가람의 고서 수집 및 서지 연구

1) 초기-한문일기(1909.04.~1919.08.)¹¹⁾

가람이 한문으로 일기를 쓴 시기는 가람이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해 공교육, 신교육을 받기 시작한 10대 후반(1909년 4월)부터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막 30대가 된 1919년 8월까지이다. 일본의 조선 강탈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던 1909년부터 가람의 일기는 시작한다. 나라

10) 여기서는 1945년 해방 이전 시기까지의 『가람일기』만을 다루고자 한다. 고서 수집과 거래, 연구, 서지 관련 가람의 활동상이 주로 해방 이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일기에서는 가람이 국어교육자, 고전문학 연구자, 교육자로서 활동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 가람이 초서로 쓴 한문일기는 번역보다 읽는 데 무척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번역자의 노고가 크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가람의 인간적 모습과 그의 학문 태도, 그리고 지식 형성의 단면을 고스란히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다.

를 빼앗기기 직전인 1910년 4월에 가람은 한성사범학교(현 서울교대의 전신)에 입학한다. 그 후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1919년 8월 까지 한문으로 일기를 쓰는 일이 계속되었다.

한문일기를 통해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가람이 한성사범학교에서 일본식 신식 교육과정과 교육 편제 아래서 신교육을 배웠다는 것이다.¹²⁾ 그것도 일제 지배를 받기 전체인 1909년부터 일부 과목은 일본인 교수로부터 배웠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람은 수신(修身), 역사, 일어, 수학, 박물, 국어, 체조, 일어 받아쓰기[書取] 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렀다.¹³⁾ 그밖에 가람은 생리학(生理學), 식물학(植物學), 지리, 외국역사, 한문도 배웠다. 4학년(1913) 때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각종 교수법과 교수안 작성법을 배우고, 실습수업까지 했다. 이렇듯 한성사범학교에서 가람이 배운 교육과정만 보면, 가람이 경성제대 출신 국학자들과 달리 독학으로 전통 학문을 익혀 자립적 국학 연구를 해 왔다는 기존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¹⁴⁾

물론 가람이 갖고 있었던 한학 학습 전통과 그 소양이 고서와 골동서화에 관심을 갖게 된 근간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가람이 고서 고증과 감정, 해제를 가하던 일련의 연구 방법과 고전문학 논의 결과가 순전히 전통 한학자로서의 산물이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지학에 한한 가람의 연구 방법과 성과는 근대적 학문 체계에 더 가깝다고 할 것

12) 『전집6-일기 I』, 211쪽.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에 설립되었다. 1899년에 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 1907년에 송현(松峴)에 신축하고, 점차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1910.12.03.)

13) 『전집6-일기 I』, 176-189쪽. “이날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다. 역사[史], 수신[修]. (1910.07.08.) / 문법 (07.09.) / 일어, 수학 (07.11.) / 박물(博物), 국어 (07.12.) / 일어 받아쓰기[書取], 체조 (07.13.) / 본국역사(本國歷史) (07.14.) / 식물학(植物學) (07.15.)”

14) 황재문, 앞의 논문, 129-161쪽. 황재문 역시 전집본 『가람일기』를 토대로 근대적인 학술 활동에 참여한 예를 제시하면서 기존 평가와 달리 가람을 전통과 근대 학문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과도적인 수학’ 과정을 거친 한국학 연구자로 새로 규정했다.

이다. 가람의 학문 형성에 있어 한성사범학교에서 배운 일본식 근대교육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고서를 수집하고 고증, 분석, 탐구해 문헌에서 의미를 도출해 내는 일련의 학문적 탐구 과정은 이미 한성사범학교에서 익힌 근대식 교육을 통해 배태된 것이었다.

『국문학전사』 자서(自序)에서 가람은 20살 무렵 우리 말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책을 구해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당시 가람은 한성사범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나는 20살적부터 우리 말글에 뜻이 돌아 여러 사우(師友)에게 듣고 배우며 한편으로는 이런 서적들을 정성껏 구하고 모아 곁에 항상 두고 보고픈 대로 뒤적이고 또는 깨닫고 느낀 바를 적기도 했다. (중략) 나는 우리말과 글이 담겨 있을 서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지리, 풍속, 신앙, 서지, 미술, 이런 국학에 관한 모든 서적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다.¹⁵⁾

20살 때 이미 가람은 국학 관련 서적을 모으는 데 뜻을 두었다. 자료를 읽고 새로 깨달은 것이 있거나 지인들과 교류했을 경우, 그것을 메모해 두고 적는 글쓰기 습관도 이때 이미 형성되었다. 평생 일기 쓰는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청년 가람은 그 시절 망국의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특별히 우리말과 글이 담긴 서적, 옛 조상들이 남긴 고서와 서화첩을 모으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성사범학교 재학 당시 조선어강습원에서 열린 주시경의 한글 교육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말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각인할 수 있었다.(1911.10.01.)

가람이 책방을 찾아다닌 기록은 1910년 11월 20일 일기에서 처음 보인다.¹⁶⁾ 하지만 1913년 2월 한성사범대학 졸업할 때까지 서점 방문, 또

15) 백철·이병기, 『자서(自序)』,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5-6쪽.

는 고서 수집 관련 기록은 6회에 불과하다.¹⁷⁾ 아직 학생 신분이라 고서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가람은 1913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서 수집과 거래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남양보통공립학교 교사 시절 『천일야화(아라비안나이트)』로 잘 알려진 『만고기담(萬古奇談)』을 즐겨 읽고(1913.09.17.) 신문관 등에서 아동 잡지를 구독했다.(1913.09.21.) 망국의 청년교사 가람이 받은 첫 월급은 17원 82전이였다.¹⁸⁾ 그런데 첫 월급의 절반을 국학 문헌 수집에 썼다.¹⁹⁾ 가람은 이미 책 수집과 독서를 통해 학문하는 즐거움, 곧 자신만의 학도락(學道樂)을 찾은 것이었다.

1915년 일기부터 그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람이 각종 전적을 구입하고 거래한 사실이 등장한다.

- * 『팔종화보(八種畫譜)』 및 『미원장춘여첩(米元章春餘帖)』을 주문했다. (1915.01.08.)
- * 일금 44전은 좌야(佐野)가 편집한 『사군자부(四君子部)』 4책 및 『쾌두소포(机頭小圃)』 2책을 청목송산당(靑木嵩山堂)에 주문했다. (1915.02.03.)
- * 오사카[大阪]로부터 『최면치료법』 1책과 『난정기(蘭亭記)』 1첩이 왔다. (1915.07.04.)
- * 추사(秋史) 선생의 필첩을 임모(臨摹)했다. (1915.07.10.)
- * 전당포를 찾아다니며 구경했는데, 남문 안에 이르러 『원교진첩(圓嶠

16) 『전집6-일기 I』, 209쪽. “조 형(趙兄=조춘원趙春元)과 더불어 흥화문에서부터 책방[書肆]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왔다.” (1910.11.20.)

17) 『전집6-일기 I』, 214-259쪽. “오후에 회동서포(滙東書舖)에 갔다. 왕희지(王羲之)의 필첩 1책을 사았는데, 35전이였다.”(1911.01.05.) / “돌아오는 길에 보급서관(普及書館), 광동서관(廣東書館)에 들렀다.”(1912.01.03.) / “박기용(朴基溶)과 함께 일한서방(日韓書房)에 가서 『가정교육학』 1책을 샀다.”(1913.02.12.) 등.

18) 『전집6-일기 I』, 442쪽. “월봉(月俸)이 17월 82전이다.”(1913.05.21.)

19) 이병기, 「해방전후기(I)」, 『경향신문』, 1949.09.25. “내가 처음 18圓 월급을 받았으나 그 돈의 반 이상은 책을 샀었다. 나는 이걸 한 娛樂으로 여기려니와, 그보다도 우리 國學에 당한 귀중한 文獻을 수집하자던 것이었다.”

眞帖』을 얻었다. (1915.08.28.)

- * 관훈동(寬勳洞) 117번지 고물상(古物商)에 가서 옛 그림 및 필적[書跡]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다. (중략) 일금 2원 80전은 고서적 및 고화폭(古畫幅), (중략) 35전은 『맹자』, (중략) 1원은 겸재(謙齋) 정선(鄭敼)과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두 사람의 산수화 2폭. (1915.09.13.)
- * 일금 3원 20전을 숭산당(嵩山堂)에 부치고 『초자휘(艸字彙)』, 『전자휘(篆字彙)』,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劄記)』 각 1부를 주문했다. (1916.01.12.)

당시 가람은 고서화첩(古書畫帖), 필첩(筆帖), 서법서(書法書), 회화(繪畫) 류에 특별히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람은 이런 서화첩을 주로 일본 서점(日韓書房, 靑木嵩山堂, 帝國神祕社 등)을 통해 구입했다.

그리고 1916년 이후로는 관심 서적이 서화첩 외에 경사자집(經史子集) 류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남서관(昌南書館)에서 『당송팔대가문(唐宋八大家文)』, 『정포은선생집(鄭圃隱先生集)』, 『훈몽집요(訓蒙輯要)』를 구입하고(1916.08.11.), 신문관(新文館)에서 『동국통감(東國通鑑)』과 『임장군경업전(林將軍慶業傳)』을(1916.09.29.), 그리고 신문관에서 『삼국사기(三國史記)』, 『열하일기(熱河日記)』, 『훈몽자회(訓蒙字會)』, 『강감찬전(姜邯贊傳)』, 『신단실기(神壇實記)』 같은 역사서 및 어문학서(1916.10.31.)를 다수 구입했다. 이후로 가람의 고서 수집과 거래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일기는 1917년 4월부터 1919년 4월 중순까지 누락되어 있고, 1919년 4월 14일자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으로 공교롭다. 그 이유는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한반도 전역이 극심한 사회적, 정신적 혼란을 겪은 직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4월 14일자 일기부터 다음 해까지 『가람일기』에는 서지나 고서 관련한 거래나 이렇다 할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2) 중기-국문일기(1919.08.~1926.04.)

가람은 1919년 8월 12일부터 순 국문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기존 한문일기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국문일기를 함께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가 국문 표기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 새로운 서술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후 8월 16일부터 국문으로만 쓰기 시작했다. 한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가람이 한문을 버리고 국문일기로 바뀌 썼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증할 수 없지만, 3.1.운동 실패에 대한 가람의 자기반성이 1910년대 주시경의 한글 연구 및 정리, 보급 활동을 비롯해 국문 사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²⁰⁾과 맞닿아 실천 의지를 갖게 되어 일부러 국문 글쓰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해 봄직하다. 국문일기는 1926년까지 약 7년간 지속되었다.

초기 국문일기, 즉 1919년 8월부터 1920년 후반까지 작성된 국문일기는 내용과 성격 면에서 확실히 국문일기 이전, 그리고 국한혼용일기로 전환한 이후와 비교해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시시콜콜한 일상사와 개인적 단상, 개인적 감정을 토로한 내용이 주를 차지한다. 일기 도중에 시를 적기도 하고 지인들과의 평범한 만남을 자세히 기록하는가 하면, 우울한 분위기와 개인적 심회를 적은 일기가 1920년 6월까지 1년 넘게 지속되었다. 당연히 고서 구입과 열람, 필사 등의 활동 기록은 일체 사라졌다.

『가람일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시기는 서지학자, 국학자가 아닌, 인간 이병기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수준 낮은 국문 통속소설을 비난하거나(1919.08.20.) 남녀평등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1919.09.12~13./09.18.) 쉬운 우리말과 글로 된 신문, 잡지를 많이 발행

20) 허재영, 「일제강점기 한글운동과 문맹퇴치(문자보급) 운동 연구」, 『독서연구』 44, 한국독서학회, 2017, 140-144쪽. 당시 ‘조선문’으로 불린 국문을 한문 대신 사용하는 것이 민족 문화 발달의 시작이라 여겨 종교단체와 민족주의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국문의 정리, 통일, 보급에 힘썼다. 문화운동 차원에서 조선문 보급을 위해선 한자보다 조선문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당시 지배적이었다.

해야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진다(1920.04.06.)는 목소리를 낸 것 정도가 그나마 특별한 내용으로 눈에 띈 정도다. 국문일기를 쓰며 가람이 일상의 소사(小事)에 주목한 일기를 쓴 것은 3.1. 만세 운동 실패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찾기의 일종이자 정신적 방향의 흔적이라 할 것이다.

1920년 7월 2일자 일기에서 가람은 특별히 좋은 책을 가려 정성껏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 놓았다.

차영천(車永天) 군과 가티 진고개에 갔었다. 영턴 군이 책을 사아 보겠다 하여 책전마다 뒤지어 청년(靑年)의 불만한 책을 골라서 사았다. 몇만 권 되는 책 가운데 맛당히 읽을 책을 골르기도 쉽지 못하다. 잠시 번적 그 제목(題目)만 보고 이 책은 맛당하고 저 책은 못 맛당하다 하며 썩 골라내기가, 마치 모든 여자 가운데 언뜻 고 나 안애를 가리어 엇기 가티 어렵다. 한갓 그 얼굴은 어엿분 줄 아지마는 그 맘과 학식과 행우가 어셔한지 모르드시 한갓 그 제목은 훌륭하지마는 그 뜻과 글이 어셔한지 모르겠다. 그럼 그 책을 지은이가 어셔한 인가 먼저 살펴어보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본다. 마치 내 안애를 구하매 먼저 그 경력(經歷)과 가딩(家庭)을 살펴어보고 그 다음에 그이를 보드시 하면, 어셔한 경력 가진 이며 엇더한 가딩에서 자란 이며 어셔한 인지 알 터이니, 이 책도 어셔한 이가 어셔한 제목을 지었는지 알 터이라. (중략) 과연 배홀 것이 만 한 가운데 스승께나 책에서 배호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미덥고 바루고 참되다. 그럼 스승과 늘 나와 가티 잇슬 수도 업스니 책과 나 늘 가티 잇서야 하겠다. 책을 작구 사갓구나. 줄곳 읽갓구나. (1920.07.02.)

좋은 책을 판별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제목뿐 아니라 작가가 누구인지, 곧 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좋은 책=스승’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가까이 곁에 두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인 책을 구입해 열심히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을 많이 사서 읽는 것이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이는 가람 자신에게 향한 자기 주문이자 자각

의 결과다. 가람은 좋은 책을 판별할 줄 아는 안목과 식견이 학문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 여겼다. 훗날 가람이 정확한 서지 정보 파악이 학문하는 이의 기본 밑천이고 고전문학 연구의 토대가 서지 연구에 있음을 강조한 것도, 실은 좋은 책을 선별하는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1920년 7월 기사 이후로 가람은 예전처럼 고서를 모으고 도서 거래와 정보 교환을 하며,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1921년 이후로 국내 고서와 문헌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서고 진위를 가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 [1] 수당계로 들어서 불교회에 이르다. 정광진 군이 일본에서 모아 가져온 책을 보다. 불서(佛書) 불이를 찍으나 모았다. 그 가운데에도 옛 조선 어른네께서 지은 것을 많이 모았다. 매우 고마운 일이다. (1921.02.15.)
- [2] 불교회 가서 『능엄경』 번역을 했다. (1921.02.21.)
- [3] 불교회에 들렀더니 『삼강행실(三綱行實)』, 『이륜행실(二倫行實)』이란 책 2권이 와 있다. 이 책은 일찍 맡은 들었으나 보기는 처음이다. 두 책이 다 임진왜란을 치렀고 옛적 우리말을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한 책이다. (1921.06.29.)
- [4] 정갑원 씨께서 정송강(鄭松江)의 『사미인곡』을 얻어 와 베끼다. (1921.10.29.)
- [5] 돌아오다가 양진태(梁珍泰) 씨를 찾아 『춘향전』 2책, 『심청전』 1책, 『구운몽』 2책, 『홍길동전』 1책을 얻어오다. (1922.05.14.)

1920년대 초 가람이 접한 고서의 면면과 거래 방식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가람은 불교회를 방문해 각종 불교 서적과 불경을 열람하고, 내친 김에 번역까지 했다.([1], [2]) 일본에서 들어온 불서 중 조선인이 쓴 불서가 다수 있는 것을 알고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는 자기 소회를 밝힌 것이 인상적이다. 가람의 민족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 고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 알아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의 실물을 처음 보고 감격해 마지않았다.([3]) 국어사적 자료라는 관점에서 고서의 가치를 일별하고 있는 가람에게서 이미 서지 전문가다운 모습이 어른거린다. 가람은 『사미인곡』과 『구운몽』 등 우리 고전문학 원서를 읽고 문학 연구에도 탐닉하기 시작했다.([4], [5]) 가람이 수행한 연구 성과는 1930년대에 신문과 잡지를 통해 다수 발표되었다.²¹⁾

그런데 1921년 이후로 고서를 대하는 가람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히 고서 수집과 거래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서지에 대해 진위를 가리고 품평을 가하는 모습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고산자(古山子)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열다섯 권을 구경했다. 과연 대학자다. 엮은 꼴이 갈래가 바르고도 자세하다. 아마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이 책 짓은 담에 짓은 듯하다. 이 책을 한 평생 정력을 다 들이여 짓은 듯. 진실로 우리나라 큰 보배다. (1921.02.09.)
- [7] 불교회에다 리양산(李梁山)이 『례천명첩(禮泉銘帖)』을 가지고 와 판다. 썩 귀한 본이다. 오히려 구양순의 필의(筆意)를 짐작하게 되었다. 자획이 가는 것이 아마 마석(磨石)의 탁본인가 보다. 마석의 탁본은 원비문(元碑文) 자가 흐려지고 이글어져 잘 보이지 아니하면 그 비면을 좀 갈아버리고 조히 대고 박아내는 것. (1923.10.04.)

서지 판별을 위한 근거를 다각도로 찾고자 하는 가람의 모습에서 가람의 관심사가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가람은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김정호의 『대동지지』를 본 뒤 『대동여지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동지지』가 지닌 서지적 가치를 평가했다.([6]) 그리고

21) 예를 들어, 1920년대 초 송강 정철 가사를 베껴 필사본을 소장한 가람은 1936-1937년에 「송강가사의 연구(一)-(三)」이라는 제목으로 『진단학보』에 3회에 걸쳐 송강가사 문학의 전모를 최초로 연구해 발표했다. 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 『진단학보』 4·6·7, 진단학회, 1936.4, 1936.12, 1937.6.

책꽂이 이양산(李梁山)이 판 구양순의 비명첩(碑銘帖)을 감식하면서 자획 굵기를 통해 마석(磨石)한 탁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7]) 20대부터 비명첩이나 서첩, 화첩 등을 이미 특별히 더 관심 갖고 보아왔기 때문에 일정한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한편, 1923년 이후로 가람은 진고개(泥岬, 오늘날의 충무로)에 위치한 일본 고서점²²⁾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순례하듯, 산책하듯 들르곤 했다. ([8], [9])

[8] 나는 그길로 문광당(文光堂), 군서당(群書堂), 몇몇 군데를 거쳐서 계동(桂洞)으로 오다. (1923.10.02.)

[9] 아침 먹고서는 발우 진고개로 달아났다. 서점이란 서점은 거의 다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일전에 내가 보아놓고 돈이 없어 못 사던 책은 벌써 누가 사갔는지 보이지 아니한다. 내가 보라는 책은 남도 보라는 것 같다. 흠이 내가 보아놓고 밋어 사지 못한 책을 발우 그 다음에 가보면 없고 한다. 더욱이 이마적은 동경진재(東京震災) 통에 책사(冊肆)도 많이 결단 난 까닭에 볼 만한 책은 나오지 아니하고 그뿐더러 조금 있으면 책금이 더 오르느니 하여 그전보다 책들을 더 사가는 것 같다. (1923.11.27.)

그곳에서 가람은 서점주인, 다른 학자, 지인, 개인 고서 소장자 등을 자주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지에 관한 여러 정보를 나누곤 했다.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있어 진고개 서점 방문은 고서 향유 문화의 자연스런 한 행태였다. 고서점을 드나들며 다양한 고서를 접하고, 서지 진위를 살피는 식견을 살찌우고, 각종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2) 『가람일기』에 진고개에 위치한 서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진고개(서점)”라고 적어 놓은 경우도 많다. 일한서방(日韓書房)을 비롯해 대관옥호서점(大阪屋號書店), 군서당(群書堂), 춘광당(春光堂), 문광당(文光堂) 등은 모두 진고개에서 일본인들이 운영한 서점들이다.

3) 후기-국한(國漢)혼용일기(1926.05.~1945.08.)

가람은 한글로 적던 일기를 1926년 5월부터 국한혼용체로 다시 바꿔 쓰기 시작했다. 국한혼용 표기가 학교 교육뿐 아니라 각종 공문서, 신문과 문학잡지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람 역시 그러한 글쓰기를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국한혼용체로 바꿔 일기를 쓰기 시작한 1926년부터 1928년까지 3년여 간에는 앞서 가람이 즐겨 찾던 진고개 서점 방문 기록도 별반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에는 진고개 서점 순례보다 시조와 한시 창작이나 번역, 그리고 사적 사색과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서 고서 소장 지인들이나 고서를 소장한 유관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서적 열람과 대여, 필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가람은 일찍이 1920년대 초부터 직접 고서를 필사하곤 했다. 그리고 필사에 의한 고서 구입은 193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필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²³⁾ 하지만 직접 베껴 쓰기 어려울 때면 다른 지인 또는 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필사를 의뢰하기도 했다.([10]-[12])

[10] 송인동(崇仁洞) 고향당(苦學堂)에 가서 이중화(李重華) 씨를 만나고 정계섭(鄭啓燮) 군을 찾아보고 같이 와, 백지(白紙)를 두 권을 사 주고 『해동문헌총목록(海東文獻總目錄)』을 등사(謄寫)케 했다. (1933.08.08.)

[11] 김화진(金畬鎭) 군이 오다. 『삼한습유(三韓拾遺)』를 다 등사해 가져다. 6원(元)을 주었다. (1933.08.10.)

[12] 정계섭 군이 『해동문헌총목록』을 다 벗겨 가지고 왔다. 4원을 또 주었다. 『삼한귀감(三韓龜鑑)』을 또 벗겨 달라고 맡겼다. (1933.08. 19.)

23) “불교회에 가서 고산자(高山子)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를 베꼈다.” (1921.07.04.) / “불교회에 가서 『훈민정음』을 베꼈다.” (1921.07.23.) 등.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필사본 고서가 이런 식으로 유통되었다. 다른 지식인 또는 전문 필사자에게 필사 의뢰해 만든 필사본을 가람 자신이 소장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대여해 주기도 했다. 고서 원본을 직접 소장하기 어렵다면, 필사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필사본은 그 자체로 이본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자 입장에서는 필사 경험을 토대로 다른 필사본을 감정하거나 연구하는 데 요구되는 서지 감식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한편, 1930년대 일기에는 가람이 서지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가람을 인정하고 가람에게 고서 감정을 의뢰하는 일이 잦아졌다.

『성교서(聖敎序)』와 추사(秋史) 필첩(筆帖)을 가지고 장발(張勃) 군과 같이 육상궁(毓祥宮) 앞 무카이[向井虎助]의 집에 가서 그 장서(藏書)인 『성교서(聖敎序)』와 대조하여 보다. 내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조각조각 오려 붙인 것인데 첩수(帖首), 첩말(帖末)에 예당(禮堂 : 秋史)의 글씨로 해설이 있다. 미단본(未斷本) 일자불결(一字不缺), 송원탁(宋原拓)이라고. 그리고 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상본(以上本)과 꼭 같은 것이고, 하나는 좀 다르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서첩(書帖)을 보았으나 그 중, 『성교서』 두 본이 제일 좋다. (1932.01.30.)

가람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성교서(聖敎序)』와 일본인 무카이가 소장하고 있는 동일 책을 대조해 선본(善本)을 판정했다. 이때 가람이 추사 필첩과 함께 가지고 갔다고 한 『성교서』²⁴⁾는 왕희지의 글씨체를 집자해 만든 것이었다. 『집자성교서』는 7세기에 만들어진 원비(原碑)와 송대의 탁본을 최고로 치지만, 명나라 대에 이르러 이 원비가 절단된 까닭에 그 이전 것을 ‘미단본(未斷本)’, 그 이후 것을 ‘기단본(己斷本)’이라

24) 『성교서』는 당 태종이 명승인 현장삼장(玄奘三藏)의 『신역불전(新譯佛典)』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여 지은 책이다. 특별히 『집자성교서』는 행서(行書)를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책으로 인식되었다.

구분해 불렀다. 따라서 일본인 무카이가 소장한 『성교서』에 “미단본(未斷本) 일자불결(一字不缺), 송원탁(宋原拓)”이라 한 추사의 품평이 있음을 설명하고 『성교서』를 최고로 평한 것은 전문가다운 식견이 아닐 수 없다. 가람의 서지학적 지식과 안목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13] 무측천전(武則天傳)을 쓰다. 손진태(孫晉泰) 군이 왔다. 『화엄경첩(華嚴經帖)』 다섯과 『불조전(佛祖傳)』과 『천태사교의집해(天台四教儀集解)』 상중하 3책을 가지고 왔다. 감정(鑑定)해 달란다. 그중, 『화엄경』은 고려장경(高麗藏經)(현종(顯宗) 때? 선종(宣宗) 때?) 복각본(覆刻本)인 듯하다. (1940.04.24.)

[14] 최현배(崔鉉培) 군을 찾아보고 연전(延專)서 빌려온 고서의 판본(板本)을 감정(鑑定)하다. (1941.04.05.)

고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가람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13]) 가람 자신도 각종 판본을 감정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14]) 일본 서점 주인이 가람 소장본 고서를 보기 위해 가람을 일부러 찾아온 적도 있었다.²⁵⁾ 이는 가람이 당시 이미 대단한 장서가로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3.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진면목

1) 고서 수집 방법 및 거래 내용

수십 년 동안 가람은 여러 방법으로 고서를 모으고 수집한 자료를 분

25) 『전집9-일기IV』, 351쪽. “경도(京都) 대옥덕성(大屋德城) 노인이 고서를 보러 성대(城大) 중길공(中吉功) 군과 가치 찾아왔다. 이능화 씨의 소개장을 가지고. 대옥(大屋) 노인은 대각국사(大覺國師)에 대하여 연구 중 그 문헌을 얻어보라 한다.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와 기타 서적을 보여주었다.” (1937.04.11.)

석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가람이 고서를 구하거나 열람하기 위해 상대한 것은 주로 고서 소장 특정 기관이나 개인, 전문서적상인 책패, 그리고 고서점이었다.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면모를 알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고서를 다룬 내역을 확인해 보자.

첫째, 교사가 된 1920년대 초 이후부터 가람은 늘 해오던 대로,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 또는 개인 소장자를 찾아가 각종 고서와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빌려 보곤 했다.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 소장자를 만나 친교를 나누며 고서를 열람을 하거나 직접 필사하기도 했다.

- [15] 유년수(柳年秀) 군과 같이 궁정동(宮井洞) 박완(朴浣)군 집에 가서 『해동가요록(海東歌謠錄)』과 『요도(瑤圖)』와 『투보(骰譜)』와 『간독정요(簡牘精要)』를 5원에 사오다. (중략) 오내(午內)에 광동서관(光東書館)에 가서 『망로각수기(忘老却愁記)』(가요집)를 3원(三元)에 사오고 박기홍(朴基鴻) 집에서 『명탁한예(明拓漢隸)』 4종(四種)을 사오다. (1930.07.20.)
- [16] 아악부(雅樂部)에 가 보다. 『악서정해(樂書正解)』를 보다. (1934.01.30.)
- [17] 시천교당(侍天教堂)에 가서 『용담유사(龍潭遺詞)』 신구(新舊) 두 책과 『성일학과(聖日學課)』를 얻어 오다. (1934.03.04.)
- [18] 대학도서관에 가서 『임하필기(林下筆記)』 여섯 권을 얻어 오다. (1934.06.07.) / 대학도서관에 『임하필기』를 갖다 주다. (1934.06.22.)
- [19] 성대(城大) 법문부(法文部) 장지태(張之兌) 군을 찾다. 『장절공유적(壯節公遺蹟)』을 보다. 박세채(朴世采)가 수집한 것. 또 『성소부부고(惺所覆韻藁)』 전12책 사본(寫本)을 보다. 관물헌(觀物軒), 이극지인(貳極之印)이 찍혔다. 허균(許筠)의 저작. 일자일어(一字一語)가 비범하다. (1941.08.09.)
- [20] 다전정지[多田正知] 군이 백합화 뿌리를 가지고 왔다. 가사집(歌詞集) 등사한 것과 『서포만필(西浦漫筆)』을 주었다. (1934.01.10.)
- [21] 서방서어[緒方犀台]와 같이 다전정지[多田正知] 군을 가보다. 『청운잡총(靑韻雜叢)』을 갖다 주다. (1934.01.27.)

[22] 하거(何居)를 가보고 고본(古本) 몇 가지를 보고 경자자(庚子字) 초인본(初印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영본(零本) 2책, 『연조귀감(椽曹龜鑑)』 전(全) 2책을 얻었다.(1940.07.12.)

아악부([16]), 시천교당([17]), 경성제대 도서관([18], [19]), 불교회, 중앙학교 등 종교 기관, 대학 도서관 등 고서를 소장한 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고서를 열람, 대여, 또는 필사를 할 수 있었다. 천도교 간부인 박완(朴完)으로부터 개인 소장본을 직접 구입했는가 하면, 김영환이나 박기홍(朴基鴻)처럼 전문 서적상의 집을 찾아가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15], [22]) 개인 소장자 중에는 서점주인, 또는 지방의 지인들과 선후배 동료, 제자, 그리고 심지어 일본인 교수, 학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20], [21]) 이렇듯 가람은 생활 속에서 전방위로 고서를 찾는 노력을 경주했다. 매일 서지 관련 관계자를 만나고 서점과 관계 기관에 들러 고서를 뒤적거렸다. 직접 고서를 베껴 쓰기도 하고, 고전문학과 서지에 관한 원고를 써서 잡지사나 신문사에 보내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고서를 고증하고 판별하는 자신만의 감식 요령도 쌓이게 되었다.

둘째, 가람은 고서점 외에 서적 외판원처럼 돌아다니며 고서를 전문으로 사고팔던 책쾌(冊僞)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찾는 고서나 귀중본 고서를 얻을 수 있었다. 직접 책쾌를 찾기도 하고 책쾌가 가람 집을 찾아오기도 했다. 『가람일기』에서 가람이 가장 많이 상대한 책쾌로는 이양산(李梁山), 송신용(宋申用)²⁶, 이성의(李聖儀)²⁷ 등이 있다.

26) 이민희, 『마지막 서적중개상 송신용 연구』, 보고서, 2009, 44-46쪽. 송신용과 가람 이병기와의 거래 및 교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송신용은 도서관 관계자, 서지학자, 서적상들의 서지 연구 모임인 서물동호회(書物同好會)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27) 성택경, 『華山文庫에 대하여』, 『서지학』 5, 한국서지학회, 1972, 27-28쪽.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 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95-96쪽.

- [23] 불교회에다 리양산(李梁山)이 『례천명첩(禮泉銘帖)』을 가지고 와 판다. 싹 귀한 본이다. (1923.10.04.)
- [24] 아침에 책 거간꾼이 『월인석보(月印釋譜)』 제2, 『훈민정음서문(訓民正音序文)』 합권 제1책, 제21 각 1책, 도합 3책을 가지고 와 제2는 70원, 제21은 20원을 달라고. 통 20원을 받으라 했다. 싸 가지고 갔다. (1932.02.15.)
- [25] 송신용(宋申用) 군이 오다. 한석봉 서(書) 『천자문(千字文)』 한 권을 사다. (1937. 09.16.)
- [26] 이성의(李聖儀) 군이 오다. 고본(古本) 『훈몽자회(訓蒙字會)』를 가져 오다. 보던 중 좋다. (1938.06.02.)

1920년대에 이미 리양산(李梁山)과 여러 차례 고서를 거래한 기록이 보인다.([23]) 문고본 『가람일기』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책래다. 그러나 책래와 가장 활발히 고서를 거래한 것은 1930년대였다. 특히 책래 송신용([25])과 이성의([26])와 거래를 활발히 가졌다.

한 번은 아침부터 책을 팔기 위해 아무개 책래가 가람을 찾아왔다. ([24]) 책래는 『월인석보』와 『훈민정음』 합권의 가격으로 90원을 불렀다. 하지만 가람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20원으로 흥정하고자 했다. 이에 책래는 그냥 가버렸다. 책 구입 과정에서 책래와의 이런 흥정과 마찰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일기에 책래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아마도 흥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리라. 가람은 고서마다 책값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서적상만큼 잘 알고 있었기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못했다. 또한 고서 거래를 위한 가격 흥정은 가람과의 친밀도, 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가람이 송신용과 거래한 사실은 1933년 3월 19일자 일기에서 처음 보인다. 이후 총 22회 정도 『가람일기』에 송신용의 이름이 언급된다. 가람은 송신용과 함께 조선문흥회(朝鮮文興會)²⁸⁾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²⁹⁾

28) 가람은 조선문흥회 발기인이자 사무 간사로서 참여했다. 조선 문화의 연구와 진흥을 목적으로 문헌 수집, 도서 출판, 강습회 개최, 잡지 발행 등의 사업을 내세우면서 1933년 1월 11일에 창립되었다. 서지 수집에 관심이 많았던 가람이 뜻

또한 『한경지략(漢京識略)』의 저자 고증 문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가람이 여러 근거를 들어 저자를 확정하자, 송신용도 가람의 주장에 동의하고 의견을 받아들였다.³⁰⁾ 고서의 출처와 저자,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야말로 고서를 1차적으로 감정하는 서지 연구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였다.

책재 이성의(李聖儀)도 가람 집을 종종 드나들었다. 1938년 1월 13일자 일기³¹⁾를 비롯해 7회 정도 언급된다. 이 밖에도 박경량(朴敬浪), 박경소(朴敬沼), 박기홍(朴基鴻)의 이름도 종종 보인다. 집에 다수의 고서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매매하던 서점주인 겸 개인 서적상이었다. 가람은 이러한 책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서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서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고서점은 진고개와 종로에 주로 모여 있었다. 가람은 191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 진고개 서점([27])을 수시로 찾았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는 종로 쪽 서점([28])을 더 즐겨 찾았다. 특별히 1925-1928년간과 1937-1940년간에는 『가람일기』에서 진고개 서점을 방문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그 기간에는 종로에 위치한 국내 고서점이나 지인, 또는 유관 기관을 통해 고서를 상대하는 일이 잦았다.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애정을 갖고 이 모임에 참여했다. 그러한 사실은 『가람일기』 1933년 기사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일본인이 중심이 된 ‘서물동학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서지 관계자들을 위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가람일기』에 의하면 이 모임은 그해에 해체되었다.(1933.08.18.)

29) 『전집9-일기IV』, 166쪽. “송신용(宋申用) 군과 문흥회(文興會)에 가다. 김억과 장지영 군도 만나다.” (1933.04.19.)

30) 실제로 가람과 저자 고증을 위해 이야기를 나눴던 송신용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한경지략』 필사본에다 처음에 자신이 수헌거사로 지목했던 이조목 대신 가람이 주장한 유득공의 아들 유본예(柳本藝)를 저자로 고쳐 적어 놓았다. (이민희, 앞의 책, 2009, 30쪽, 70-73쪽.)

31) 『전집9-일기IV』, 395쪽. “경성대학 법문부에 가서 장지태 군, 이인영(李仁榮) 군을 보고 탁지준절(度支準折)을 보고 지지(紙地)의 명목(名目)을 적고 점심을 먹고 이성의 군을 만나고 한남서림으로 단여서 오다. 이성의 군이 『삼강행실(三綱行實)』, 『이륜행실(二倫行實)』을 가져다.” (1938.01.13.)

- [27] 진고개를 샀었다. 다른 때보다 왕래하는 사람이 더 많다. (중략) 몇
 몇 책을 거쳐서 군서당(群書堂)으로 들어갔다. (1931.12.25.)
- [28] 한남서림에 가 『협주명현십초시(夾註名賢十抄詩)』 3권 1권을 사다.
 9월 (1937.06. 22.)

한편, 전집본 『가람일기』에서 진고개의 고서점을 포함해 1945년 이전
 시기에 가람이 즐겨 찾았던 고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훈동 고서점 / 광동서림(光東書林)(=光東書館=김영완(金永完) 책사) /
 군서당(群書堂) / 금강당(金剛堂) / 금문당(金文堂) / 금항당(金港堂)
 (후의 통문관(通文館)) / 대동(大同)출판사 / 대판옥(大阪屋)(號書店) /
 덕흥서림(德興書林) / 동광서관(東光書館=東光堂) / 동문당(同文堂) /
 동미서포(東美書舖) / 면강당(勉強堂) / 문광당(文光堂)(=文光社) / 문
 선옥(文選屋) / 문아당(文雅堂) / 문장각(文章閣)(=文章社) / 박경량(朴
 敬浪) 서포 / 박경소(朴敬沼) 책사(冊肆) / 박기홍(朴基鴻) 책사(冊肆) /
 박문서관(博文書館) / 백양당(白楊堂) / 신문관(新文館) / 안국동 네
 거리 고서적점 / 오문(梧文)출판사 / 이문당(以文堂) / 일한(日韓)서점
 (=日韓書房) / 주문당(周文堂) / 중앙서관 / 진고개 낚은 책사 / 창남서
 포(昌南書舖) / 청구서점 / 춘광당(春光堂) / 취진당(驟珍堂) / 한남서
 림(=백두용(白斗鏞) 서포) / 한성도서(주식회사) / 해동서림(海東書林)
 / 행림서원(杏林書院) / 홍순민(洪淳敏)서점 / 회동서관(滙東書館)³²⁾

약 40여 곳이 넘는 고서점이 일기에 등장한다. 일부 서점은 출판소와
 인쇄소를 겸하기도 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40년대 초 고서점에서
 의 고서 구입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당시 고서점에
 서 취급되던 고서와 신간 서적이 금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³³⁾ 당시

32) 진하게 표시된 것은 문고본 『가람일기』에는 없지만 전집본 『가람일기』에서 추
 가로 보이는 서점들을 뜻한다.

33) 1940년경부터 해방 무렵까지 한글 사용을 탄압하고 검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
 에 한글 서적이 무척 귀해졌다. 그러나 고서점에서는 신간이 아닌 고서를 주로
 취급한 까닭에, 비록 고서점의 서적 유통은 제한되었다고 하지만, 검열의 대상

고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독서를 통한 보이지 않는 저항을 의미했다. 1940년 5월 24일자 일기에서 가람이 책값이 폭등했다고 쓴 것도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점 주인이 책값을 올렸기 때문이었다.³⁴⁾

가람은 고서점을 혼자 방문하기도 했지만, 지인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았다. 지인이나 제자와 함께 고서점에 들러 책을 품평하거나 긴요한 서지 정보를 공유했다. 고서점 주인과도 정보를 나누며 귀중본을 다수 구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종로 쪽 고서점은 지식인들에게 고서 판매처 이상의 장소였다. 지식과 여론 형성의 광장이자 국학 연구의 아이디어와 서지 정보가 생산되던 토론의 현장과 방불했다.

이런 고서점 중에 가람의 고서 수집에 큰 역할을 한 곳이 여럿 있었다. 그 중 1930년대 초-1940년대 초에 가람이 가장 빈번히 교유한 고서점은 한남서림(翰南書林)([29]-[32])과 김영완(金永完) 책사(=何居 집=光東書館)([31])였다.

[29] 한남서림에 들어가 주인 백두용(白斗鏞)의 호의를 얻어 그 내부에 쌓인 서적들을 조사하여 보았다. 글씨를 잘 쓴 『남화경(南華經)』 5책 1절도 보고 『조선야담집』 6책을 사 오다. 6원을 달라는 것을 5원에 절가(折價)하였다. (1931.10.18.)

[30] 한남서림에 가다. 빌려온 『두시언해(杜詩諺解)』를 반환. 『담정총서(潭庭叢書)』 1책을 사다. (1937.11.01.)

[31] 대동출판사(大同出版社), 문장사(文章社), 한남서림, 하거택(荷居宅)을 단여오다. 『두시언해(杜詩諺解)』(권15, 16) 1책 초간(初刊) 활자본을 얻다. 5원(元). (1939.07.26.)

[32] 오후 한남서림에 가다. 낡은 책을 뒤적이다. 안진경(顔眞卿) 서(書) 천복사다보불탑감응문(千福寺多寶佛塔感應文) 탁본 전첩(全帖)을

이 적었기에 고서점에서 고서를 찾는 고객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87쪽.)

34) 『전집9-일기IV』, 525쪽. “한남서림에 가다. 『여씨향약언해』 복각본에 퇴계 서문이 붙었다. 12원. 책값도 폭등하였다. 경자자(更子字) 『통감』 낙질과 함께 가져오다.”(1940.05.25.)

었다. (1941.08.01.)

한남서림 관련 기록은 『가람일기』에서 1931년 10월 18일자부터다.([29]) 문고본 『가람일기』에는 약 40회 등장했다면, 전집본 『가람일기』에서는 이보다 3배 넘는 140회 정도 언급되어 있다. 화원 출신인 백두용(白斗鏞)이 세운 한남서림은 1920-30년대에 가장 큰 서점(겸 출판사)이었다.³⁵⁾ 백두용이 죽기 전인 1935년에 간송 전형필에게 서점을 팔았다. 간송은 문화재 중개상인 이순황과 한남서림 직원이었던 김동규에게 순차적으로 한남서림 경영을 맡겼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에도 간송의 후원 아래 한남서림은 고서가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계속 했다.

그런데 정작 가람은 한남서림보다 ‘하거 맥(荷居宅)’([31])을 더 많이 이용했다. ‘하거’는 앞서 언급한 광동서관(光東書館), ‘김영완(金永完) 책사’의 주인인 김영완을 가리킨다.³⁶⁾ 가람은 하거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정도로 자주 교류하면서 고서 거래를 했다. 광동서관을 처음 방문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가람과 하거는 지음(知音)처럼 지냈다.

2)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진면목

오늘날 수십 년간 고서를 모은 가람이 소장했던 고서 목록과 장서량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다. 전집본의 하나인 『총목차·색인』(제30권)에 실린 『가람일기』편 색인을 보면 330여 종의 고서만이 잡혀 있다.³⁷⁾ 하지

35) 한남서림 주인인 백두용(白斗鏞)과 한남서림의 역사, 취급 서적 등에 관해서는 이민희의 논문(『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10, 182-183쪽)과 저서(『개정판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락, 2020)를 참고할 것.

36) 전집 제30권 『총목차·색인』 편 색인 항목에 의하면, ‘하거’는 총 286회, ‘김영완’은 총 65회 『가람일기』에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완은 1934년 기준 경성 익선동 120번지에서 전국 단위로 고서를 매입하고 되파는 일을 했다. 가람과 김영완의 사적 관계 및 서지적 측면에서 가람에게 미친 김영완의 영향 관계를 후속 연구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만 가람 말년에 제자들이 작성한, 가람 소장 도서목록서인 『서목(書目)』을 보면 종수만 1,441종에 이른다.³⁸⁾ 현재 가람 소장본은 모두 서울대 ‘가람문고’에 있다. 가람문고 목록과 전집본 『가람일기』에 기록된 자료 및 각종 지면에 언급된 고서 정보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실물과 대조하는 작업도 가람의 서지적 업적을 조명하는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전집본 『가람일기』에서 가람을 근대 서지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가람을 전통적인 서지 전문가와 달리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근대 장서거나 한학자는 흔히 텍스트의 전송, 또는 필사본·판본의 진위와 계통에 관심을 두었다. 고증, 교감, 또는 문헌의 전통을 파악하는 것이 전근대 서지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텍스트 대조를 통해 본문 문자의 오탈자 유무를 가리거나 원본 또는 정본과 대조하여 차이나는 부분을 바로 잡는다거나 증첨(增添)과 산삭(刪削) 유무를 고증해 그렇게 된 경위와 전래를 밝히는 식의 서지학 연구를 의미한다.³⁹⁾ 책패와 거래하던 조선 후기 사대부 문인(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바로 판본 대조, 전거 비판, 교정본 제작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고서를 취급한 이들은 문헌 자체에 대한 고증과 진위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책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종이, 인쇄방식, 제본 형태 등을 분석하고, 책의 제작, 유통, 독서 문화 등 책의 사회사적 맥락까지 고려하게 되었다.⁴⁰⁾ 여기서 말하는 근대는, 개항 이후 서양식,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이들, 또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외국인, 예컨대 모리스 쿠랑이나 험버트, 게일 등의 서양인이 한국 고서와 각종 문헌

37) 『전집30-총목차·색인』, 110-175쪽.

38) 이민희, 앞의 논문, 2018, 276쪽.

39)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1991, 17-30쪽.

40) 하동호 편역, 『서지학』, 탑출판사, 1979, 13쪽. 예컨대, 근대 서양과 일본 학자들은 서지학을 ‘도서의 역사 및 해설에 관한 학문으로, 도서의 재료, 도서에 게재된 저작자, 표제, 인쇄, 발행회수, 발행 연도, 분류, 역사 등을 논하는 학문’으로 파악했다.

을 민간에서 쉽게 구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분류와 고증, 해석이 가능한 시대를 의미한다. 서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리,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1890년대 이후부터라 할 것이다.

근대 교육을 받은 이들은 고서를 살필 때, 진본 확인과 원형 복원은 기본이고 책의 물질성과 책을 둘러싼 문화적 의미까지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했다. 책 생산·유통·수용의 문헌사회사적 의미까지 함께 고민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 서지학자는 흔히 “어느 판본이 진짜인가?”를 답하는 데 골몰했다면, 근대 서지학자는 “이 책은 어떤 사회적, 물질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가?”까지 답하고자 한 이들이라 할 것이다. 방법론으로서의 근대 서지학은 판본 고증 및 비교에 더해 문헌사회사적 해석까지 나아가는 학문을 추구했다.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근대 학문의 일종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지녔다.

『가람일기』에서 가람은 고서를 수집해 이를 전통적인 고증·교감 방식을 사용하는 한편, 단순한 자료 정리에 머물지 않고 문화사 연구와 고전의 현대화에 깊이 관심 갖고 실천하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즉, 서지학을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라 문화사 연구의 기반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 한 측면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람을 근대적 서지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할 법하다.

가람을 근대 서지학을 이끈 서지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람이 형태서지학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본적으로 서지학자라면 고서의 물리적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서의 물리적 형태, 재료, 제작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고문헌 실물을 직접 열람하고 그 내용과 서지 형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때, 자신만의 감정안(鑑定眼)을 지닐 수 있다. 가람은 바로 그런 서지학적 안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서책은 당시(唐詩) 엽자(葉子)란 것이 변하여 호접장(蝴蝶裝)으로 된 것이다. 호접장은 선정(線釘)을 아니 쓰고 다만 풀로서 서배(書背)를 붙이고 견경(堅硬)한 것으로 거죽을 하게 하였다. 판심(版心)은 안에 있고 양변(兩邊)은 밖에 있어 결면 호접(蝴蝶)의 날개와 같다. 이 식(式)이 원초(元初)까지는 있었다 하고 선정장이든 호접장이든 통칭하여 다 본(本)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엔 나의 아는 바로는 이런 호접장이 하나밖에 없다. 고대(高大) 도서관에 소장된 여승체관록(麗僧諦觀錄)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 1책이다. 이 책은 4편을 합부(合部)한 것이다. 고려 선종(宣宗) 때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북송(北宋)서 이 원간본(原刊本)을 구래(購來)하여 즉시 해인사서 중각(重刻)하였다. 종이는 여조(麗朝)의 유명한 백추지(白硯紙)이고 자체(字體)는 구양순체로서 펍 경건하고 묵색(墨色)은 펍 창고(蒼古)하다. 그 중각 연월(年月)은 선종(宣宗) 6년(1089 A.D.)이다.⁴¹⁾

종이는 서첩·화첩을 제작하거나 제본, 필사를 하고 고서 고증을 위한 필수적인 재료이다. 책이 지닌 물질성에 관심이 있었기에 종이 자체뿐 아니라 종이 제작 및 책 제본 공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다. 가람은 종이의 재료적 특성과 종이의 역사, 종류, 제지 방법 등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서계(書契)의 유래, 책본(冊本)의 종류, 지묵필(紙墨筆)과 글자체를 토대로 문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다.

서지에 대한 해안은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가람은 직접 판본 고서 인쇄에 참여하거나 지도를 직접 그려 도첩을 완성시켰다.

[33] 새벽에 주지스님의 아들을 인천에 보내어 백지(白紙) 75속(束)을 13원 50전에 사 오다. 그리고 주지와 그 아들을 더불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판을 박이기 시작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41) 이병기, 「한국 서지의 연구(상)」, 『동방학지』 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7. ; 『전집 23-문헌·서지학』, 38-39쪽.

용경(隆慶) 3년 한산지(寒山地) 백개만(白介萬)의 집에서 사긴 걸이 절로 옮겨다 둔 것인데, 제21, 총 222장이 지금 남은 것은 47개(1개 전후면 각 2장씩 사기고 기증 1개는 3장, 또 1개는 2장만 사겼음) 185장이다. 이 판은 경상도 안동 광흥사(廣興寺)에도 있는 것인데, 광흥사판(板)은 한 장도 누락이 없이 온전히 남았으며 각자(刻字)도 그것이 훨씬 낫다. 이걸 간간히 사성점(四聲點)을 사가지 않은 것이 많다. 이걸 박노라고 여러 시간을 꼽으려고 앉았더니 가슴이 앓브고 허리가 저리다. (1930.08.08.)

- [34] 애류(崖瀏)에게서 고산자(古山子) 『청구도(靑丘圖)』를 얻어다가 원산 내지 평양 일대를 그리다.(1931.03.27.) / 지도를 그리다. 미원장(米元章) 『서첩(書帖)』을 사서 배첩(褙帖)장이를 다려다 뜯어 고산자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몇 폭을 얻었다. 물에 온종일 담겨 가지고 뜯었다. (03.28.) / 도성(京城) 전도(全圖)를 그리다. (03.29.)

[33]에서 가람은 『월인천강지곡』 원판이 있는 쌍계사를 직접 찾았다. 백지(白紙) 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한 종이를 이용해 『월인천강지곡』을 직접 찍어냈다. 등사하는 판본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목판에다 종이를 올려놓고 박는 일[謄寫]을 가람이 직접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며칠 동안 지도를 직접 그리는 일에 매달렸다.([34]) 배첩장이가 지 불러 책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일부를 얻었다.

서지학자라고 해서 고서를 수집하고 고증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직접 만들고 해체하거나 복원과 보수까지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공정과 단계를 알고 있어야 실물을 보고 정확한 감정과 고증이 가능하다. 가람이 근대 서지학자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현장에서 몸소 체득한 고서 제작 및 관리 능력이 포함된다. 직접 고서의 제작 기법과 종이 사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본과 인쇄본의 특징과 변천 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했다.

이렇듯 물질로서의 고서에 대한 이해와 서지형태학에 대한 가람의 관

심은 이후 「한국 서지의 연구(상·하)」(1957/1961)⁴²⁾에서 결실을 맺었다. 근대 서지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목(서책의 유래, 책본의 종류, 활자본, 종이, 묵, 붓, 자체(字體) 등)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성과로서, 이후 서지학 연구는 가람의 이 글을 참고해 기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람일기』와 「한국 서지의 연구」를 통해 국내 근대 서지학 연구가 어떻게 닳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 과도기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가람은 판본학적 감식 능력이 뛰어났다. 고서의 간행 시기를 추정하거나 작가를 고증하는 일, 또는 판본의 우열을 식별할 수 있는 내공을 갖췄다. 그렇기에 진본과 위서를 감정할 수 있었다. 고서 중 상당수는 고전문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35] 기록된 것을 수집하면 사본(寫本)도 있고 간본(刊本)도 있는바, 반드시 간본이라고 사본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내가 송강가사(松江歌辭)의 연구를 이왕 진단학보에 연재할 때, 간본으로서 그 이른바 정본(正本)이라는 관서본(關西本)·성주본(星州本)이 도리어 협률대성(協律大成)이라는 사본만도 못한 곳이 많았다. 또는 기타 작가의 시문집들을 보드라도 그 원초본(原稍本)이 아닌 건 거의 다 이 모양이었다. 이건 한 서지학(書誌學)의 조예가 없이는 아니 되겠다. 이 조예가 있으면 그 판식(板式)·지질(紙質)·묵광(墨光)·열법(列法)·사법(寫法)·필적(筆蹟), 또는 소장한 이의 인장(印章)·기명(記名) 등으로서 그 어떠함을 분간하게 된다. 이런 조예를 고서적 상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전학자라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장서를 많이 하였다드라도 그것이 위서(僞書)·와본(訛本)이고 보면 소용이 없다. 더구나 그 위서·와본을 빙자하여 운운(云云)함이랴!⁴³⁾

42) 『동방학지』 제3집(1957)과 제5집(1961)에 나눠 실린 이 글은 전북대에서 강의한 <한국서지>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43) 이병기, 「국문학 연구의 방법」, 『개벽』 11(1), 개벽사, 1949.03. ; 『전집14-국문학 논문·평론Ⅱ』, 2022, 422쪽.

[36] 학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서지(書誌)다. (중략) 서적은 학자의 밑천이다. 밑천이 없이는 장사도 못하고, 서적이 없이는 학자도 못 된다. (중략) 고래(古來) 서적에는 위본(僞本)·악본(惡本)도 많았다. 그러므로 서지학을 모르는 학자들 중에는 헛된 수고를 한 이가 적지 않았다. 서적의 진위(眞僞)와 선악(善惡)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턱없는 책을 그 정서(正書)로 믿고 증언부익(增衍敷益)을 하였을 뿐 아니라, 또는 이런 걸 기화(奇貨)로 삼고 위작(僞作)과 두찬(杜撰)을 더하기도 하였다.⁴⁴⁾

가람은 고전문학 연구가 서지학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고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35], [36]) 서지학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책의 진위를 가리는 일이다. 소위 좋은 책, 참된 책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진서를 판별할 수 없다면 이후의 학문적 공정과 결과 역시 믿을 것이 못 된다. 고전학자라면 서지학에 조예가 있어 사본과 간본의 차이를 변별할 줄 알고 위서(僞書), 와본(訛本)을 가릴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가람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문학 연구 방법이나 서지 분석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국내 고서와 고전 전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통적 서지 연구방법을 통해 터득하고 자신만의 관점과 체계를 구축했다.

희귀본과 귀중본을 식별하고 획득하는 안목이 탁월했기 때문에 판본 비교를 통한 이본(異本) 연구 수행이 가능했다.

황의돈 군 집에 가서 『용비어천가』 초권 2권 합 1책을 20원에 사 오다. 첫머리에는 서문(序文) 5장 가량과 전문(箋文)의 1장 반과 원문(原文) 첫 장의 반쪽이 떨어졌고, 2권 끝의 5장 가량이 떨어졌다. 누르고 낡아진 품이며 서법(書法), 각법(刻法)의 치성(致誠)한 품이 분명한 원판본(原板本)이다. (1935.01.22.)

44) 『전집 23-문헌·서지학』, 30-31쪽.

황의돈에게서 구한 『용비어천가』의 가치를 감정(鑑定)했다. 서문과 전문, 그리고 원문 일부가 떨어지고 미비했지만, 서법과 각법, 그리고 전체 지질(紙質) 상태를 고려해 가람 자신이 구입한 『용비어천가』를 원판본으로 확정했다. 근거가 확실하기에 결론도 선명했다. 서책을 감식하는 안목이 있어야 고문헌 자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

우하(又荷) 닻으로 가다. 또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제23-제29) 1책을 얻다. 이는 남송(南宋)-송(宋) 영종(寧宗) 때 간본(刊本)이다. 이 책이 여조(麗朝)에 들어와 복각(覆刻)도 되었고 이 자체(字體)를 써 이조(李朝) 태종(太宗) 계미(癸未)와 세종(世宗) 경자(庚子)에 활자도 만들었다. 즉 계미자(癸未字), 경자자(庚子字)의 원본이다. 그 복각이나 경자자 인본(계미자 인본은 아직 못 보았다)보다도 명확하다. 남송본(南宋本)의 대표이다. 오랫동안 구하든 바이다. 이 또한 한묵연(翰墨緣)인가 한다. 이것이 휴지(休紙) 속에서 무쳤든 것이다. 지소(紙所)로 가지 않으면 부엌 아궁이나 쓰레받기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1942.08.01.)

우하(又荷) 민형식(閔衡植) 집에 갔다가 우연히 본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을 가람이 활자와 판본 측면에서 감정을 했다. 제작 과정과 유통 경로까지 두루 고려할 때 그 책이 오랫동안 찾던 남송본(南宋本)임을 알고는 놀라워했다. 한낱 휴지 또는 아궁이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었던 책이 가람의 감정을 통해 귀중본으로 재평가된 것이다.

한편, 사실 관계를 고증하는 부분에서 과학적인 비평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했던 가람의 모습에서 근대 서지학자다운 면모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다.⁴⁵⁾

지난 8월 31일 『현금동문유기』 사본(寫本)을 얻은 뒤 그 저자가 누구

45) 정병욱, 「국문학 연구 학풍 30년」, 『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방법』, 신구문화사, 1999.

인가 갖가지로 조사한 바, 동 『유기』 중 가곡만대엽(歌曲慢大葉) 등을 논란한 문생(門生) 정두원(鄭斗源)과의 왕복 서명, 시류(詩類)를 두고 거기엔 또 동상 왕복서의 명시(銘詩)가 적히고 서계(西溪)라 하였다. 서계라는 이가 여럿이 있는 바, 정두원의 산 연대는 아마도 선조, 광해 때 사람이겠다 하매, 이 서계는 즉 이득운(李得胤)이가 분명하다 하면 이 저자도 그인가 함은, (ㄱ) 맹양 명시문(銘詩文) 등을 열기(列記)할 때 서계의 것을 맨 뒤에 적은 것, (ㄴ) 상기의 왕복서(往復書)에 기명(記名)을 얹은 것, (ㄷ) 『서계집(西溪集)』 권2 이양구(李養久, 時潑)에게 한 편지에 ‘大東韻玉, 可以爲考事之一助, 感受感受’라 한 대목이 있는 바, 이 책은 그 당시 아직 미간본(未刊本)으로 겨우 사본(寫本)만 1, 2부 있을 뿐이었던 걸 얻어 보고 게서 그냥 초하여 동 『유기(類記)』에 넣은 것이 있는 것, (중략) (ㄹ) 전편(全篇)이 한 사람의 글씨인 것을 보면, 십중 칠팔은 독학(篤學)인 이서계의 것으로 알았다. 지난 19일 위창(葦滄)을 가 본 건 혹시 그의 편지를 가졌나(위창이 연래 고인 서찰을 천여 장 모았다 한다) 하고 얻으러 간 바 과연 『이덕운서간첩(李德胤書簡帖)』을 얻었으나 누군지 몰라 던져두었다 하며, 바쁘니 나중 찾아 놓겠다 하였다. 오늘 가 본즉 커다란 간첩(簡帖) 첫머리로 몇 장은 초서(初書)로 누가 굵게 쓴 것이고, 그 다음 이덕운의 채선여(蔡善餘)에게 한 편지며 채지홍(蔡之洪) 편지며 기타 편지들이 붙었다. 서계 편지는 5, 6장. 그중 골라 가라 하여 2장을 뜯었다. (중략) 그 필적은 바로 동 『유기(類記)』와 동일하다. 동 『유기』가 그의 저작임이 정확하다. 펴 기뻐다. (1941.09. 27.)

『현금동문유기』 사본(寫本)을 구한 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고증하는 과정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 『유기』를 서계(西溪) 이득운(李得胤)이 썼음을 밝히기 위해 동시대 인물인 정두원(鄭斗源)과 주고받았던 서신과 글을 검토하고, 위창 오세창이 보관하고 있던 서계 관련 서신까지 확인했다. 고문헌 저자 고증이야말로 근대 서지학자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1차적 토대 연구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고서 해체에 정성을 쏟았다. 기본적으로 가람은 날 자료 상태인 고서를 직접 읽고 저자와 내용, 체제, 출판 또는 필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서지적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이 가능했다. 가람은 고서 중 고전문학 관련 서적을 교주, 또는 주해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 그가 펴낸 교주·주해서가 8편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⁴⁶⁾ 이는 가람이 문헌사회사적 해석을 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가람의 고서 해제 능력은 서지 정보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설명한 「조선어문학명저해제」를 거쳐 『국문학전사』에서 그 꽃을 피웠다. 가람은 잡지 『문장』(1940)에다 1930년대 말까지 고서 거래와 수집을 통해 소장하고 있던 고서와 지인이 갖고 있는 고서 중 가치 있는 것을 엄선해 해설을 가한 「조선어문학명저해제(朝鮮語文學名著解題)」를 발표했다.⁴⁷⁾ 전체 고서 239종 중 절반이 넘는 128종이 가람 소장본이다. 고서의 판본 사항과 책의 주요 내용 및 이본 사항, 그리고 소장자(기관)를 번호를 매겨가며 일일이 밝혀 놓았다. 여기에 소개된 239종의 고서는 국문 고서를 위주로 선별, 소개한 것으로, 한문본 고서까지 포함하면 그 종수는 훨씬 늘어난다.⁴⁸⁾

46) 가람이 선보인 해제서로는 『인현왕후전』(박문출판사, 1946), 『한중록』(백양당, 1947), 『의유당일기』(백양당, 1948), 『요로원야화기』(을유문화사, 1948), 『가루지 기타령』(국제문화관, 1949), 『어우야담』(국제문화관, 1949), 『계축일기』(단국대학교국어문학연구회, 1956), 『한등록』(이병기·김동욱 공주, 민중서관, 1961) 등이 있다. 주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 직전에 고전 읽을거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해제 작업을 거듭 시도했다.

47)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朝鮮語文學名著解題)」, 『문장』 10월호, 문장사, 1940, 215-231쪽.

48) 가람 소장본이 아닌 나머지 고서 111종의 소장자(또는 기관)들은 권덕규(權德圭), 김병룡(金秉龍), 김원근(金瑗根), 박승빈(朴勝彬), 방중현(方鍾鉉), 소창진평[小倉進平], 송석하(宋錫夏), 이명선(李明善), 이병도(李丙燾), 이병직(李秉直), 이인영(李仁榮), 임화(林和), 이희승(李熙昇), 전형필(全鎰弼), 최남선(崔南善), 홍택주(洪宅周), 황의돈(黃義敦), 그리고 경성제대도서관, 보성전문도서관, 운현궁, 이왕직(李王職)도서관, 한남서림 등이다. 이들 고서 소장자들과 기관은 실제로 『가람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가람이 평소 이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고서 소장 관계와 서지사항을 파악, 이를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어문학명저해제」는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 고서 해제 글이다. 1차로 『문장』에 실린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서는 언해류와 한글본 서적만을 다루었다. 그 후 1958년에 2차로 「한국명저해제」⁴⁹⁾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한글본 외에 한문본(經史子集部와 문학 서적)까지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해제를 가한 고서 각각에 대한 서지정보 및 해설 내용 덕분에 후에 가람이 『국문학전사(國文學全史)』 집필 시 대거 활용될 수 있었다. 가람의 고전문학 연구가 집약된 『국문학전사』는 근대 서지학자의 내공과 식견까지 응축된 총화다. 문학사 기술 방법과 예시 작품 상당수가 가람이 이미 고서 해제를 가한 「조선어문학명저해제」(1940)와 「한국명저해제」(1958)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⁵⁰⁾

가람은 고서 수집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현재에도 유용한 문학 자료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믿었다. 『국문학전사』에서 고서적의 존재 양상과 의미에 비중을 두고 서술한 부분이 여느 문학사보다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예컨대, 고종이 문사 이종태를 시켜 고소설 번역과 필사를 명했다는 내용이 다른 문학사에는 없고 『국문학전사』에서만 확인된다. 다시 말해,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서 『화정연록(華鄭延錄)』에 관해 해제하면서 “1884년을 전후해 이종태(李鍾泰)씨가 봉명(奉命)하여 그 집에다 수십인 문사(文士)를 두고 오랫동안 중국소설을 번역한 것이 근 백종이 된다.”⁵¹⁾라고 적어 놓았는데, 『국문학전사』에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다. 이로 보더라도 『국문학전사』는 문헌학, 서지학 연구의 총화로 재평가되어야 마땅하고, 고서를 문화사, 문학사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자 한 근대 서지학자만이 쓸 수 있었던 문학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서 해제의 성과는 『국문학전사』 뿐만 아니라 이후 『국문학개론(國文學概論)』(일지사, 1961)에도 다수 반영되었다.

49) 이병기, 「한국명저해제」, 『사조』 1-7, 사조사, 1958.6.~1958.12.

50) 이민희, 앞의 논문, 2014, 239-257쪽.

51)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231쪽.

넷째, 가람은 2만 권 넘는 고서를 소장한 장서가였다. ‘서지학자=장서가’라고 당연히 여긴다면, 이는 무식의 소치다. 단순한 장서가가 아니라, 그 많은 고서를 가지고 의취(意趣)가 남다른 박학다식(博學多識)과 박람강기(博覽強記)한 독서를 기반으로 새 국학 연구의 길을 낸 서지학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제 고서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 삶에 진실했던 장서가였다. 책패, 서점주인, 연구자, 지인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관심 있는 자료를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구하고 소장하는 데 특장(特長)을 발휘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장서 1천 4백 종이 『서목』에 정리되었거니와 가람의 장서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후대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고서 감식안이 뛰어났던 가람이 특별히 새로 발굴하거나 귀하게 여겼던 귀중본, 희귀본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닌다.

완본은 아니지만 국보급에 속하는 초판본 『용비어천가』(제1책 제2권), 성종 대에 제작된 최고 미판(美版) 활자본인 『금강반야바라밀경』(=『금강경삼가해』), 중국 한시 20수를 세종이 번역한 『증도가(證道歌) 건(乾)』과 『남명집 곤(坤)』, 의서로 뿐만 아니라 중세국어 용법 연구 자료로 귀중한 『구급방(救急方)』, 가람이 제일로 자랑하던 필사본 『석보상절』(제4권), 전국 8도에 사라진 절의 소재·연혁·사적 등을 정리한 필사본 『범우고(梵宇攷)』, 명필 궁체로 쓰인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야기인 『인현성모덕행록(仁顯聖母德行錄)』, 그리고 『가람일기』에서도 자세히 고증한 거문고 연구의 진서라 할 『현금동문류기(玄琴東文類記)』 등은 귀중한 희귀본, 진서(珍書)이자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진가를 알려주는 장서들이다.

또한 가람이 애정을 갖고 연구해 온 ‘시조’와 ‘가사’, 고전문학 관련 각종 작품집도 장서가로서의 가람을 빛내는 장서 목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일본, 귀중본들을 감정하고 입수하고 보관하고 평가해 알리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술한 애환과 희열로 점철된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

람의 진면목을 증명하고 있다.

4. 나오며

이상에서 가람을 근대 서지학의 개척자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가람은 서지학 연구를 국학과 고전문학 연구에 적용, 접목한 독보적인 연구자였음을 더욱 선명히 알겠다. 가람은 평생 책을 가까이 두고 고전문학 기초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가로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강연회나 강의실에서, 또는 그의 저서에서 보여주고자 진력했다. 고서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업을 근대 국학자 중에서 가람이 가장 앞서 개척했다. 서지 및 문헌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증을 기반으로 가람은 고전문학을 연구하고 고전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고서 거래와 수집의 실재를 살필 수 있는 전집본 『가람일기』와 서지 해제에 기초해 서술된 문학사인 『국문학전사』, 가람의 소장도서 목록서인 『서목』, 가람이 고전문학 자료에 해제를 가하고 주해한 각종 주해서, 그리고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식견이 고스란히 담긴 「한국 서지의 연구」 등의 성과야말로 가람이 장서가이자 서지학자로서 평가될 이유와 근거를 대변하고도 남는다. 전집본 『가람일기』와 『서목』은 그 자체로 가람 소장 도서를 매개로 한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부연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국문학전사』는 한국 고전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지녔다. 가람이 소장하고 있던 방대한 수의 고서를 직접 문학사 기술의 1차 자료로 삼은 데다, 가람이 평소 가졌던 서지학적 안목이 곳곳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백철이 『국문학전사』 후기에서 “특히 古典文學史篇과 國漢文學史篇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람 선생이 비장했던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제시한 점인데, 이것은 다른 펴본가 추종할 수 없는

獨自의 面이며 독자는 여기에서 크게 느끼고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⁵²⁾ 라고 말한 것도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이런 점에서 『국문학전사』는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의 서지적 식견과 고전문학 연구 능력이 정점을 찍었을 때의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가람이 행한 각양의 활동과 서지 관련 글들은 서지학 연구의 본보기로 충분하다. 가람이 수행한 서지 고증과 감정이 얼마나 적실했으며, 이후 서지학과 고전문학 연구 및 발달에 기여했는지 그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작업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람일기』와 『서목』, 서울대 가람문고 목록, 「한국명저해제」 등에서 산출한 서지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DB를 구축한다거나 가람이 대학 강단에서 몸소 보인 서지학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탐색하는 작업도 긴요한 과제다. 후속 연구를 약속한다.

52) 백철·이병기, 「餘白에 쓰는 말」(後記),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556-557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서울대학교 도서관 편, 『(일사·가람문고) 古書著者目錄』, 서울대학교 도서관, 1966.
- 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 『진단학보』 제4·6·7집, 진단학회, 1936.4, 1936.12, 1937.6.
- _____,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제2권8호, 문장사, 1940.10, 215-231쪽.
- _____, 「독서와 서지」, 『춘추』 10월호, 1941, 131-138쪽.
- _____, 『역대시조선』, 박문서관, 1945, 3쪽, 9쪽.
- _____, 주해, 『인현왕후전』, 박문출판사, 1946.
- _____, 주해, 『한중록』, 백양당, 1947.
- _____, 주, 『의유당일기』, 백양당, 1948.
- _____, 선해, 『요로원야화기』, 을유문화사, 1948.
- _____, 교주, 『가루지기타령』, 국제문화관, 1949.
- _____, 교주, 『어우야담』, 국제문화관, 1949.
- _____, 「국문학 연구의 방법」, 『개벽』 제11권1호, 개벽사, 1949.03.
- _____, 「해방전후기(I)」, 『경향신문』, 1949년 9월 25일자.
- _____, 「고전문학론」, 『문학』 제6권3호, 1950.5.1, 138-139쪽.
- _____, 주, 『계축일기』, 단국대학교국어문학연구회, 1956.
- _____, 「나의 한 돌이켜 생각나는 옛날」, 『한글』 제120호, 한글학회, 1956.11.30, 8쪽.
- _____, 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 _____, 「한국 서지의 연구(上)」, 『동방학지』 제3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57, 17-38쪽.
- _____, 「한국명저해제」, 『사조』 제1-7집, 사조사, 1958.6.~1958.12.

- _____, 「한국 서지의 연구 (下)」, 『동방학지』 제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1, 31-44쪽.
- _____. 김동욱 공주, 『한등록』, 민중서관, 1961.
- _____, 『국문학개론』, 일지사, 1961.
- _____, 『서목(書目): 가람 이병기 소장본』, 발행자불명, 1963.
- _____, 정병욱 · 최승범 편, 『가람일기 I · II』, 신구문화사, 1976.
- _____, 『가람 이병기 전집 6-10: 일기 I-V』,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_____, 『가람 이병기 전집 14: 국문학 논문 · 평론II』,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_____, 『가람 이병기 전집 23: 문헌 · 서지학』,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2. 단행본

- 이경로, 『통문관 책방비화』, 민학회, 1987.
-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2013.12.
- 이민희, 『16-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 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 _____, 『마지막 서적중개상 송신용 연구』, 보고서, 2009.
- _____, 『(개정판)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락, 2020.
-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 임미진, 「가람 이병기 서지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2013.
- 정병욱, 「국문학 연구 학풍 30년」, 『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방법』, 신구문화사, 1999.
-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1991.
-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하동호 편역, 『서지학』, 탑출판사, 1979.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2009.

_____,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의의」, 송철의 외,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학자』, 태학사, 2013.

3. 논문

류준필, 「이병기 국문학 연구의 체계와 특성」, 『한국문학논총』 제22집, 한국문학회, 1998, 270-303쪽.

성택경, 「화산문고에 대하여」, 『서지학』 제5집, 한국서지학회, 1972, 27-28쪽.

윤지아,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문헌 필사와 필사자의 존재 양상 연구」, 『고전과 해석』 제24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55-82쪽.

이경애, 「가람 이병기의 일기문학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88집, 한국언어학회, 2014, 249-279쪽.

_____,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제64집, 국어학회, 2017, 243-279쪽.

이민희, 「백두용의 한남서림 연구-새 발굴 자료 『가장도서첩(家藏圖書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75-201쪽.

_____,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쪽.

_____,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제40집, 애산학회, 2014, 215-262쪽.

_____, 「가람 이병기 저작물에 관한 기초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58집, 민족문학사학회, 2015, 405-457쪽.

_____, 「가람 이병기 소장도서목록 〈서목(書目)〉 연구」, 『영남학』 제64

- 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271-312쪽.
-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화사연구』 제10집, 민족문화사학회, 1997, 345-386쪽.
- 최승범, 「가람 선생의 생애와 학문」, 『어문연구』 제29집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267-288쪽.
- 최원식, 「고전 비평의 탄생: 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 지성사적 위치」, 『민족문화사연구』 제49집, 2012, 66-81쪽.
- 황재문, 「고전 재해석의 관점에서 본 가람 학문의 특성과 의의」, 『애산학보』 제40집, 애산학회, 2014, 31-60쪽.
- _____, 「이병기의 수학(修學)과 학술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람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141집, 진단학회, 2023, 129-161쪽.
- 허경진, 「근세 국학과 가람 이병기의 위상」, 『애산학보』 제40집, 애산학회, 2014, 31-60쪽.
- 허재영, 「일제강점기 한글운동과 문맹 퇴치(문자보급) 운동 연구」, 『독서연구』 제44집, 한국독서학회, 2017, 127-161쪽.

<Abstract>

A Study on Garam(嘉藍) Lee Byeong-gi(李秉岐)
as a Modern Bibliographer
- Focused on the Collected Edition of
Garam Diaries (5 Volumes)

Lee, Min-heui*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Garam(嘉藍) Lee Byeong-gi (李秉岐, 1891-1968), who is well known as a Sijo poet and scholar of Korean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modern bibliographer. To this end, we comprehensively examined Garam's collection and transaction history of old books and bibliographic research activities, focusing on the complete collection of *Garam Diaries*(嘉藍日記, 5 volumes) published in 2024. The *Garam Diaries*, which were written over a period of 57 years, were written differently in Chinese, Korean, and mixed Korean and Korean scripts depending on the period. Based on this, we divided Garam's diary writing into early, middle, and late periods and examined the changes in Garam's academic attitude toward old books and bibliographies.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ed four reasons why Garam can be evaluated as a modern bibliographer. Garam 1) had a specialized eye for bibliography, 2) had an outstanding ability (eye for discernment) to distinguish genuine from fakes by examining the editions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books, 3) attempted to systematically convey bibliographic informatio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study of classical texts and the writing of commentaries and annotations, and 4) was a lifelong collector of valuable books and various authentic books, confirming his appearance as a modern bibliographer. This paper is merely the first step toward reestablishing Garam's academic status as a modern bibliographer.

Key Words: Garam Lee Byeong-gi, Garam Diaries(嘉藍日記),
Classical Chinese Diaries, Korean Diary, Korean and
Classical Chinese Mixed Diary, Old Book Expert,
Morphological Bibliography, Modern Bibliographer,
Bibliophile.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26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21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21일

